팍팍한 中企, R&D지원비 딴 데 쓴다

제조업 중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3% 이하로

핵심원천 기술 개발 않고 단순 기술에 보조금 전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지원된 예산이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이 부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토론회에 앞서 '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김 센터장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2005년에 8천285억원으로 중기 전체 R&D 투자액인 2조6천억원의 32%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이 지원규모는 우리나라보다 재정규모가 큰 일본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천881개 중소기업의 5천606개 과제에 대해 이 금액이 지원되면서 기업당 1억7천만원에 머물렀는 데다 지원액이 주요 핵심원천 기술 개발이 아닌 단순기술 개발에 집중됐다고 김 센터장은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 중소기업청의 R&D 예산 지원단가는 기업당 연간 7천900만원인데, 사실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획처 관계자는 "예산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개발의 90%가 성공하는데, 이는 선진국의 5~10%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개발을 사실상 완료해 놓고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분배형에서 소수 집중형으로 전환해 과제당 지원규모를 올리고 단순 상용기술과 함께 소재분야를 비롯한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중기청 등이 운용하는 유사사업은 통합하거나 역할을 나누는 등의 조정과정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에 대해 산자부·중기청 등의 중소기업 R&D지원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조사하는 등 성과평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D(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의 약어. 일반적으로는 기업에서 이전에 없었거나 더 나은 제품 기술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은 2002년에 3.94%로 정점을 찍은 뒤 2003년 3.61%, 2004년 3.18%, 2005년 2.91% 등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반면, 제조업분야 대기업의 이 비율은 2002년 2.27%, 2003년 2.49%, 2004년 2.64%, 2005년 2.70%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은 2002년 5.01%, 2003년 4.56%, 2004년 4.47%, 2005년 4.25%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김 센터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장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주택대출 만기 장기화

작년말 10년 초과 비중 21% →51%로 급증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장기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우대한 데 따른 것으로, 만기가 길수록 대출 가능액이 커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로 장기 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약정 만기 3년 이하 비중은 2004년말 60.1%에서 작년말 30%로 하락한 반면 만기 10년 초과 비중은 20.7%에서 5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9조8천억원에서 217조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액 가운데 만기 10년 초과는 71.2%를 차지했고 3년 이하는 15.3%에 그쳤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액은 90조5천억원으로 이중 1년 이내가 51조9천억원, 1년 초과~3년 이하가 38조6천억원이다. 5년 이후 만기 도래액은 110조5천억원으로 이중 10년 이후 만기 도래액은 85조5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1년 이내 만기 도래 비중은 2004년말 41.7%에서 작년말 23.9%로 하락한 반면 5년 이후 만기 도래 비중은 22.7%에서 50.9%로 급상승했다.

이처럼 만기가 길어진 것은 LTV와 DTI 규제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2년 9월 LTV 규제를 도입해 현재 투기지역에서는 LTV를 원칙적으로 40%를 적용하되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대출(6억원 이하 아파트)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DTI 규제도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고정금리 연 5%, 분할 상환 방식으로 DTI 40%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만기 3년은 약 5천300만원, 만기 15년은 약 2억1천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은행들이 이달 2일부터 DTI 적용을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함에 따라 만기 장기화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약정만기비중 추이

(단위:%, 조원)

기준시점	3년이하			3~5년	5년초과			잔액
		1년이하	1~3년			5~10년	10년초과	
'04년 말	60.1 (36.0)	12.2 (7.0)	47.9 (29.0)	15.7 (11.3)	24.2 (52.7)	3.5 (2.0)	20.7 (50.7)	169.8
'05년 말	43.9 (26.6)	15.4 (6.9)	28.5 (19.6)	16.7 (13.0)	39.5 (60.4)	5.1 (3.0)	34.4 (57.4)	190.2
'06년 말	30.0 (15.3)	11.1 (3.9)	18.9 (11.4)	12.6 (9.2)	57.4 (75.5)	6.4 (4.3)	51.0 (71.2)	217.0

※잔액및 신규취급액 기준 ( )은 신규 취급액의 비중

기아차 '아시안 X게임' 후원

기아차는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X게임 주관사인 ESPN, 중국 상하이스포츠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 아시안 X게임' 후원 조인식을 가졌다. 기아차는 대회 타이틀 스폰서로서 대회공식명칭, 각종 배너 및 홍보물, 경기장 내부보드 등에 회사 로고를 삽입, 관람객들에게 기아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기아차제공〉

"정부 냉·온탕 정책에 집값 요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건희 회장 위기론 공감… 생산성 확대 필요"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3일 5~6년뒤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분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생산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이 반(反)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조 국장은 "친 시장적 정책인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면 주택가격 상승시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지난주 OECD와 회의에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친 시장적 정책이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냉온탕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며 "2005년이후 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이 냉탕 정책이었다면 정부가 이제는 공공부문을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충분한 택지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정성을 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에 대해서도 "우리(정부) 대책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 방향은 OECD가 권고했던 내용"이라며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냉온탕 정책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구촌 존경받는 기업

삼성전자 34위

포천지 50대기업 선정…美 제너럴 일렉트릭 1위

전세계의 '존경받는 50대 기업'에 삼성전자가 포함됐다. 경제전문잡지 포천은 2007년의 존경받는 기업들을 선정하면서 상위 50대 기업에 삼성전자를 포함시켰다. 삼성전자는 미국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와 동률 34위에 랭크됐다. 이밖에 50위권 바깥에 LG와 포스코, 현대차 및 한화도 포함됐다.

존경받는 기업 1위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선정됐다. GE는 앞서 포천이 발표한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에서도 1위에 랭크됐다. GE에 이은 2위에는 도요타가 올랐으며 이어 프록터 앤드 갬블, 존슨 앤드 존슨, 애플 및 워런 버핏이 소유한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 순으로 랭크됐다. 상위 10위권에는 이밖에 페덱스, 마이크로소프트, BMW 및 펩시콜라가 포함됐다.

국가 별로는 미국에서 135개 기업이 포함돼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61개사로 2위에 올랐다.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이 각각 26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는 13개사가 포함됐으며 스위스와 중국이 그 다음으로 많은 각각 8개사를 랭크시켰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도 각각 7개와 6개사를 포함시켜 한국에 앞섰다. /연합뉴스

1세대 포털 '네띠앙' 5월 다시 문연다

015 사업 서울이동통신서 인수

법인 파산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1세대 커뮤니티 포털 네띠앙이 015 무선호출 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에 의해 서비스를 재개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이동통신은 지난 2월말 네띠앙을 인수, 오는 5월 중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이동통신은 이번 인수를 통해 네띠앙 회원을 대상으로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850만 회원을 기반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무선통신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네띠앙 사업부를 신설, 기존 네띠앙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서비스 재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향후 서비스 방향으로는 기존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되, 전문가와 네띠앙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 기획 조직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실생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이동통신이 자체 보유한 무선 통신서비스 및 기술과 연계해 유무선 통신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고객 서비스도 기획하고 있다.

네띠앙은 1997년 창사 뒤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내세워 국내 대표적 포털로 부상하기도 했으나 2000년대 들어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8월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서울이동통신은 1992년 설립한 양방향 무선호출 기간통신사업자로 현재까지 015 삐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경련 회장선출 20일 임시총회

차기회장 조석래씨 유력

〈효성그룹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이달 20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임시 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이 당초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했던 임시 총회일을 예상보다 빨리 확정함에 따라 회장단 내부에서 차기 회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달 27일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이 무산된 후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회장단을 중심으로 물밑 의견 수렴 작업을 벌여왔으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임시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총회에서 차기 회장 인선을 놓고 극심한 내부 분열상을 보여 회장 선출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강신호 현 회장은 이번 주중 차기 회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지난달 총회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여전히 유력 후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회장단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임시총회 전에 회장단 회의를 열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험 신뢰도 여전히 낮아

잦은 분쟁 여파…은행·증권에 못미쳐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은행과 증권사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이는 보험 모집조직의 전문성 부족과 보험금과 관련한 잦은 분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대 정중영 교수는 1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보험산업 이미지 개선 워크숍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 199명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39명, 보험업계 출입기자 35명 등 모두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험이 은행 등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는 의견이 계약자의 40.2%로 '은행 등보다 높다'(33.7%)는 응답보다 많았다. '상호 비슷하다'는 응답은 26.1%였다.

또 CEO의 89.7%, 출입기자의 88.6%는 보험의 신뢰도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낮다고 응답,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일반 소비자에 비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신뢰도 저하 원인으로는 보험 모집조직의 전문성 부족이 2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험금 관련 분쟁 19.3%, 상품.약관의 복잡성 18.1%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석회석 조합 가격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하 석회석조합)이 회원사들의 생석회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중간 유통상에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년간 이같은 행위를 한 석회석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1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석회석조합은 2002년 4월 생석회제조업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제강용 생석회 판매가격을 t당 6만50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회석조합은 또 같은 해 10월부터는 t당 7만1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2004년 2월에도 판매가격을 t당 1만3천원 이상씩 인상키로 결의하는 등 회의를 통해 제품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석회석조합은 가격담합 외에도 대표자회의를 통해 2002년 5월부터 가격안정을 위해 중간거래상에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제조업체들이 제강사에 생석회를 직접 공급하기로 결의했다.

석회석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생석회, 소석회 등 석회석 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68개(생석회는 16개사) 업체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며, 생석회는 제철소에서 철광석이나 고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첨가하는 석회석 가공제품이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절반

"공채시즌 직원이직 두렵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명 중 1명 정도는 공채시즌이 돌아오면 직원들이 이직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에 따르면 스카우트 코리아(www.scoutkorea.co.kr)와 함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653명을 상대로 "공채시즌이면 직원들이 이직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가"를 물은 결과 48.2%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원의 이직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6.2%가 '조직 업무 분위기를 깨뜨린다'고 답했고, '생산성 하락'(26.8%), '이직 도미노현상'(8.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7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직방지 프로그램의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77.0%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회사 여건이 어려워서'(49.5%), '근무환경이 자유롭기 때문에'(15.9%), '투자대비 효과가 낮을 것 같아서'(13.4%)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